



대창, 17년째 군산시 인재 양성 장학금 기탁

군산시는 (주)대창(회장 조시영)이 6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창그룹 조시영 회장은 2009년부터 17년간 매년 군산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사랑과 사회공헌을 실천해온 대표적인 군산 출신 기업가이다. 그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기탁한 장학금만 누적 1억 7,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장학금 기탁 이외에도 모교인 성산초등학교 및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등에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지역 인재들의 성장을 위한 공헌 활동을 펼쳐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조시영 회장은 이번 기탁식에서 “인재양성 장학금이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군산시에서 지역의 인재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강임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은 “17년간 한결같은 (주)대창의 후원은 군산시 교육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달해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해나가는 데에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1974년 경기도 시흥에서 조시영 회장이 대창 공업사로 창립한 대창그룹은 현재 구리합금과 금속 소재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황동봉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매출 1조 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현재는 국내 5개, 미국·중국·태국 등 해외 4개의 계열사를 이끌고 있다.

조시영 회장은 황동제품 국산화와 국내 비철업계 발전 및 기술 고도화를 주도하는 등 괄목할 만한 경영 성과를 이끌어온 공이 인정되어 작년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기념식에서는 기업가에게 있어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임실군, 치매안심마을 행복요리교실 운영

임실군이 말복(末伏)을 맞아 지난 4일과 5일 이들 동안 치매안심마을인 임실을 갈마마을과 청운면 발산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요리교실’을 열어 백숙 요리를 함께 만들고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말복은 여름철 복날 중 마지막으로,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고 기력이 많이 소진된 시기로 영양가 높은 보양식 섭취가 중요하다.

이에 치매안심마을을 행복요리교실에서는 전문 보양사인 백숙을 직접 조리하며 참여자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자 했다.

행복요리교실 참여자들은 신선한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조리 과정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와 웃음꽃을 피웠다.

/임실=전충영 기자



“연금 퀴즈 풀고 체험하며 국민연금제도 배워요”

국민연금공단, ‘연금골든벨’ 본선 열려 … 온·오프라인 개최로 참가 아동들 ‘큰 호응’

“이건 딸기 맛 과자.” 눈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입에 넣은 음식의 정체를 맞으며 빠르게 맞는 A양(11)은 게임 결과에 따라 받은 용돈을 들고 농협시장 체험부스로 향했다.

A 양은 “진짜 물건을 직접 고르고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다.”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포토월에서 친구들과 기념사진까지 찍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 A 양은 “연금골든벨 퀴즈를 풀면서 국민연금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보다 직접 와서 친구들과 함께 퀴즈도 풀고 체험도 할 수 있어서 훨씬 재미있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5일 공단 본부 누리리홀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등에 소속된 아동 240명이 참가한 ‘연금골든벨’ 본선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나눔재단이 주최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국민연금의 미래 가입자인 아동들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퀴즈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여건으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다가, 올해는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이날 본선에 진출한 아동과 이들을 응원하는 아동까지 100여 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공간 견학, 포토월 사진 촬영, 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즐겼다. 특히 눈을 가린 채 음식을 맛보고 무슨 음식인지 맞히는 ‘미각 게임’ 체험부스에서, 순위에 따라 받은



용돈으로 농협시장 체험부스에서 직접 물건을 고르고 가져가는 활동은 아동들에게 큰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 주었다.

본선은 지역아동센터 등 전국 60개 기관에 소속된 아동 1,200명에게 연습 문제집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비 학습을 진행한 후 예선을 거쳐 선발한 24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난이도 하·중·상 순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등 문제를 풀어나갔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표창장과 장학금 30만 원이 지급됐다.

김태현 이사장은 “연금골든벨이 올해 4회차를 맞이하며, 아동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이번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방식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확대된 형태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진안 백운면 행장복지센터 앞, 만개한 하얀 수국꽃 ‘눈길’

진안군 백운면(면장 이보순)은 올해 행정복지센터 앞 화단에 식재한 수국이 최근 만개하면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국 식재는 백운면이 매년 점진적으로 추진해 온 ‘면 소재지 아름다운 경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올해는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꽃종을 선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꽃길을 조성했다.

주민들은 설문조사에서 ‘백운(白雲)’이라는 지명처럼 순백의 이미지를 지닌 하얀 수국이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에 면에서는 행정복지센터 앞 유휴 공간을 정비하고 수국을 식재해 계절의 아름다움을 더했으며, 만개한 수국이 면사무소를 찾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정서를 선사하고 있다.

백운면은 행정복지센터 주변뿐 아니라 반송리 열차마을 일원에도 매년 유채꽃과 코스모스를 식재해 계절마다 다양한



한 꽃길을 선보이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마을 경관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보순 면장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소재지가 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물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백운만의 정감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읍기적의도서관, ‘북스타트 가족의 날’ 23일 개최

정읍시가 영유아 가족을 위한 독서·놀이 축제 ‘북스타트 가족의 날’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읍기적의도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북스타트 사업의 취지를 되새기고, 책과 함께하는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총 30가족이 참여해 그림책 읽어주기, 음악 활동, 풍선 놀이, 도서관 피크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가족들은 포대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놀이를 즐기며 책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갖게 된다.

‘북스타트 가족의 날’ 참가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정읍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정읍기적의도서관(063-539-6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주천면, 도란도란 염색방 등 진행

남원시 주천면은 지난 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남여 의용소방대원, 맞춤형복지팀이 협력해 ‘도란도란 염색방’과 ‘우리동네 효자손’을 진행했다.

여성 의용소방대에서는 취약계층에 고효율 엘이디(LED) 등 교체, 노후 전기선 정리, 고장이 난 문 경첩 수리 등으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했다.

매월 진행되는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매우 효용이 높아, 작년(2024년) 한 해 동안 ‘도란도란 염색방’ 사업을 통해 17개 마을 104명이, ‘우리동네 효자손’ 사업을 통해 15개 마을 24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새마을지도자신포동협의회, 사랑의 집수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마을지도자신포동협의회(회장 김규영)가 신포동 평강마을의 취약계층 가정 1곳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6일 오전 8시부터 협의회 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낡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 안을 청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회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냉방고와 침대 등 무거운 집기류를 옮기며 도배·장판 교체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힘썼다.

김규영 회장은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힘을 보태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년 지역 소외계층 가정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김제시새마을회(회장 백창민)의 후원을 받아 뜻깊은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